

# 글쓰기와 은유



# 이 강의는...

- 인지언어학 전공자가 아닌 국문학 전공자가
- 인지언어학의 일부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강의입니다.
- 사고 과정에 폭넓게 개입되는 '은유'를 식별하고, 다양한 예시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은유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력과 읽기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 강의 목표

- 인지언어학의 은유 개념을 학습하여 은유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 읽기와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서 은유를 분석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 읽기 과정에서 은유를 통해 숨겨진 전제와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기른다.
- 쓰기 과정에서 은유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 글의 명확성과 설득력을 높인다.

# 참고문헌

1. 김애령(2013), 『은유의 도서관 - 철학에서의 은유』, 그린비.
2. 나익주(2020), 『은유로 보는 한국 사회』, 한뼘책방.
3. 장은하(2021), 『글쓰기와 메타포』, 푸른사상.
4. G.레이코프·M.존슨(2016),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박이정.


- PPT템플릿 출처 : '2022년 올해의 컬러 베리페리 사용 메타버스 주제 깔끔한 PPT 템플릿', 새별의 파워포인트 PPT 템플릿, [https://yusaebyeol.blogspot.com/2021/12/powerpoint-template-free-download-2022.html?utm\\_source=pocket\\_shared](https://yusaebyeol.blogspot.com/2021/12/powerpoint-template-free-download-2022.html?utm_source=pocket_shared), (2024.10.1.).

# 목차 a table of contents

---

- 1 인지언어학과 은유
- 2 은유의 본질과 종류
- 3 은유 분석과 비판적 읽기
- 4 은유와 학술적 글쓰기
- 5 종합 정리





Part 1,  
인지언어학과 은유

# 은유란?

- 은유의 사전적 정의
  -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예로는 “내 마음은 호수요.” 따위가 있다. (‘은유’ 항목, 표준국어대사전.)
- 두 개념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으로서 ‘A는 B다’의 구조를 갖는다.
- A와 B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직접적인 비교 없이 암시적으로 유사성을 드러내고 대상이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함.
- 독자가 특정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하게 하고, 의미의 확장을 유도.

# 인지언어학에서 은유는

-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 우리는 언어적 증거를 주된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적 개념체계의 대부분이 그 본성에 있어서 은유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G.레이코프, 2016:21-22쪽)



# 인지언어학에서 은유는

- 너의 주장은 방어할 수 없다.
- 그는 내 논증의 모든 약점을 공격했다.
- 나는 그의 주장을 분쇄했다.
- 나는 그와의 논쟁에서 한번도 이긴 적이 없다.
- 네가 그 전략을 사용한다면 그가 너를 쓸어버릴 걸.
- 그는 나의 모든 논증을 격파했다.

→ 위의 표현은 「논쟁은 전쟁」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전제한 것.

# 인지언어학에서 은유는

- “우리가 논쟁할 때 행하는 많은 것은 부분적으로 전쟁이라는 개념에 의해 구조화된다.”
- 우리 사회가 물리적 싸움이 아닌 언어적 싸움 개념을 논쟁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이고, 「논쟁은 전쟁」 은유는 우리가 논쟁에서 수행하는 행위, 이기거나 지고 전략을 세우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등의 행위를 구성하게 함. → 논쟁을 대화나 논의가 아니라 서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함.
- 반대로 논쟁에 전쟁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 문화권이 있다면? → 「논쟁은 전쟁」의 관점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 인지언어학에서 은유는

-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in terms of)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 「논쟁」은 「전쟁」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구조화되고, 이해되고, 수행되고, 말해진다. 개념이 은유적으로 구조화되고, 행위가 은유적으로 구조화되고, 따라서 언어가 은유적으로 구조화된다.”  
(G.레이코프:24)

- 우리가 논쟁을 「전쟁」과 관련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논쟁을 그런 방식으로 지각하기 때문.

→ “인간의 사고 과정의 대부분이 은유적이다.”

# 은유적 개념의 체계성

- 「시간은 돈」

- 너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이 장치는 네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 나는 너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
-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니?(How do you spend your time these days?)
- 나는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 나는 그것에 할애할 만한 시간이 없다.
- 너는 네 시간을 아껴 쓸 필요가 있다.
- 시간이 많이 남았니?
- 그것에 네 시간을 쓸 가치가 있니?

# 은유적 개념의 체계성

- 「시간은 돈」(Time is money) (G.레이코프:27-30 참조)
  - 시간을 하나의 경제적 자원으로 이해하게 함.
  - 우리 문화에서 시간은 귀중한 상품이며 한정된 자원이다.
  - 시간이 정확히 양으로 측정되는 현대 서양 문화에서 일의 개념이 발달되어 온 방식 때문에 시간이나 주, 년 단위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 이 관행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했다.**
  - 우리가 시간이 귀중한 상품, 한정된 자원, 돈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에 따라 우리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 그래서 시간을 소비, 낭비하거나 계획성 있게 쓰거나 투자하거나 허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험한다.
- 「시간은 돈」 → 「시간은 한정된 자원」의 뜻을 내포 → 「시간은 귀중한 상품」의 뜻을 내포
  - 이는 하위 범주화에 근거한 단일 체계를 형성한다.
  - 소비하다, 투자하다, 아껴 쓰다, 유익하다, 비용이 들다와 같은 표현은 돈을 지시
  - 사용하다, 다 쓰다, 충분히 가지다, 다 소모하다는 한정된 자원을 지시
  - 가지다, 주다, 잃다, ~에 감사하다는 귀중한 상품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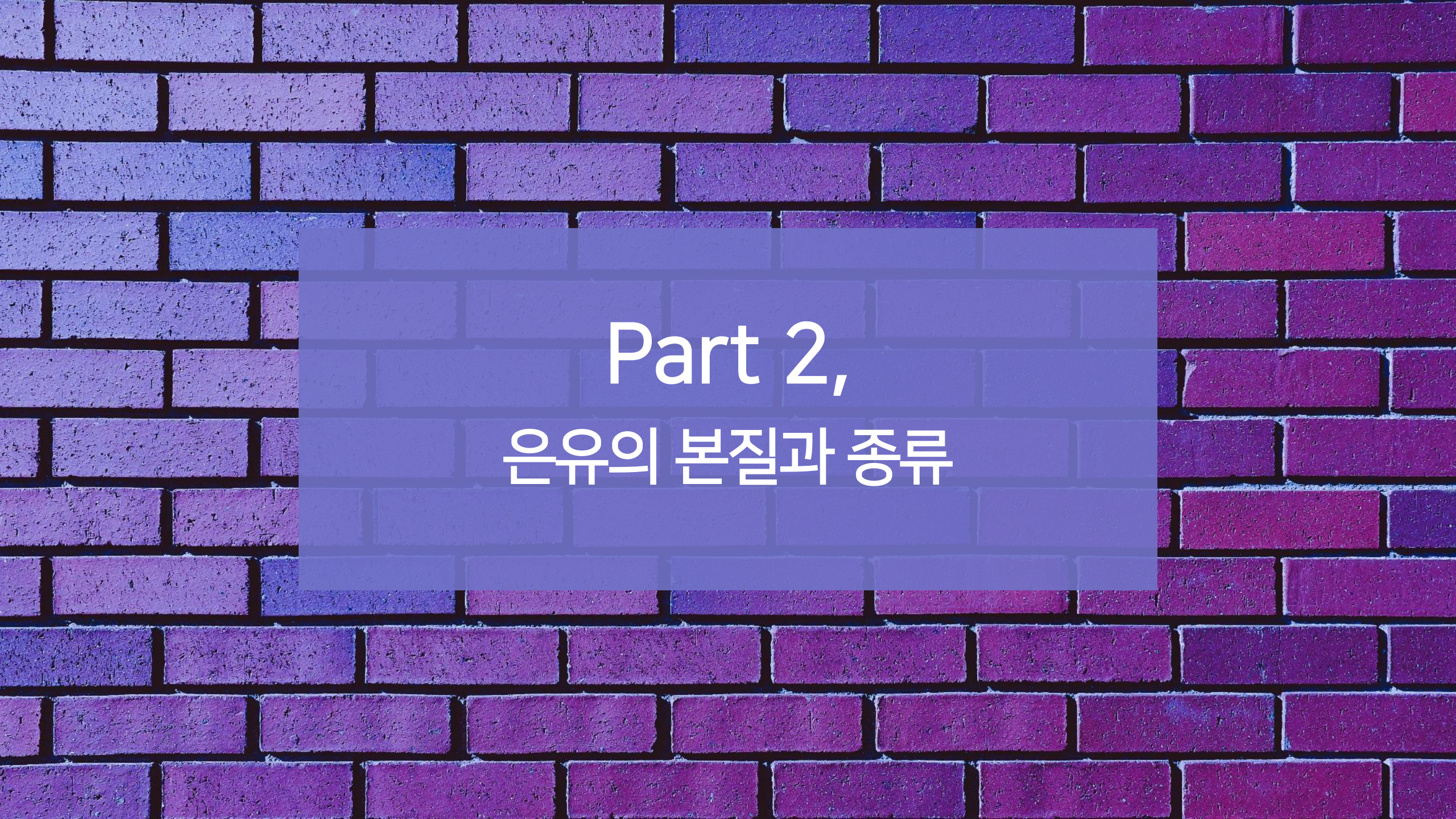
# 은유의 체계성 : 부각과 은폐

- 어떤 개념의 한 측면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주는 체계성은 필연적으로 그 개념의 다른 측면을 은폐함 (G.레이코프:31-36 참조)
  - 논쟁을 전쟁으로 이해할 때, 공격과 방어에 집중하면서 논쟁의 협동적 측면을 놓칠 수 있다.
  -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 → “아이디어를 전달하다.” “나는 그의 뜻을 전달받았다.” 언어를 객관적인 사물이나 물리적 대상처럼 여기게 하는 은유. 이는 주관적 해석의 차이나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생성되는 현상을 은폐함.
- 은유적 개념은 부분적 이해를 제공하며 다른 측면을 은폐함
- 은유적 구조화는 전체적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
  - ‘시간 = 돈’ 이 아니다. 돈과 시간은 부분적으로 일치되고, 그 부분에서만 돈을 통해 시간이 설명된다.

# 은유와 학술적 글쓰기

- 은유는 단순히 수사법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넘어, 사고와 언어에 본질적으로 개입하므로, 학술적 글쓰기에서 다루는 것은 필연적이며 적절하다.
- 은유는 우리의 인식 체계를 형성하는 도구이고,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학술적 사고와 글쓰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논쟁은 전쟁」이라는 개념적 은유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은유는 우리의 인식과 행위 양식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
  - 특정 논쟁에서 대립하는 입장은 각기 다른 은유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은유가 논쟁의 핵심 논점을 형성하고 각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Part 2,  
은유의 본질과 종류



# 문학적 은유 혹은 '은유법'

- 고전적 은유 이론에서는 '은유'를 수사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인지언어학의 '은유'는 인간의 사고 과정의 본질적 부분
- 따라서 수사적 표현, 문학적 표현은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 고전적 은유 이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은유란 일상적으로 쓰는 '정상적' 언어 표현이 아니라 수사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일탈적' 언어 표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은유를 잘 사용하는 것은 천재의 징표로서 시인이나 능변가의 전유물이라 주장했다."(나익주:15)
- 고전적 은유법은 일반 언어 사용과는 무관한 것

# 구조적 은유

-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것
- 앞서 예를 든 「시간은 돈」, 「논쟁은 전쟁」, 「말은 그릇」과 같은 은유를 가리킴



# 지향적 은유

- 상호 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 체계를 조직하는 은유적 개념
- 위 - 아래, 안 - 밖, 접촉 - 분리, 깊음 - 얇음, 중심 - 주변 등의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이 있음
- 공간적 지향성은 우리가 현재와 같은 몸을 가졌고, 그 몸이 우리의 물리적 환경에서 현재와 같이 활동한다는 사실로부터 생겨남
- 「행복은 위」(HAPPY IS UP) → “I’m feeling up today.”(나는 오늘 기분이 들떠 있다) ; 「슬픔은 아래」(SAD IS DOWN) → “I’m feeling down.”, “I’m depressed.”, “He’s really low these days.”
  - 물리적 근거 : 수그러진 자세는 전형적으로 슬픔이나 절망을 동반, 똑바로 선 자세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동반

# 지향적 은유

- 「통제를 하거나 힘을 갖는 것은 위, 「통제나 힘에 복종하는 것은 아래」
  - 그는 높은 지위에 있다.
  -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
  - 그는 내 통제 아래에 있다.
  - 그의 권력은 기울어가고 있다.
  - 그는 나보다 아랫사람이다.
  - 물리적 근거 : 몸의 크기는 전형적으로 몸의 힘과 상관관계가 있고, 싸움의 승자는 전형적으로 맨 윗자리에 있다

# 지향적 은유

- 공간화 은유는 물리적, 문화적 경험에 뿌리박고 있다. 이 은유는 자의적이지 않으며, 은유에는 가능한 물리적·사회적 근거가 많이 있다.
- 어떤 은유들이 선택되고 어떤 은유가 중심이 되는지는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은유의 물리적 근거와 문화적 근거의 구별은 어렵다.
- 순수한 추상적 개념, 과학 이론의 개념들도 이러한 은유에 근거한다. ‘고차원의 기능’의 고(高)는 「이성은 위」에 근거한다.
- ‘고에너지 입자’의 고(高)는 「많은 위」에 근거한다.

# 존재론적 은유

-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물리적 실체로 이해하는 방식.
-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개념을 물리적 객체, 용기, 또는 물질로 비유하여 이해
-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사고를 단순화하고 개념을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함 → 감정이나 생각처럼 추상적인 개념도 물질적 대상으로 전환되어 이해할 수 있게 됨
- 우리의 경험 기반으로 추상적 개념을 물리적으로 처리하게 함

# 존재론적 은유

- 「감정은 물질」: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감정을 용기에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물질화
- 「마음은 용기(container)」: “마음속에 그를 담아두고 있다.”
- 「이론은 건물」: “그의 이론은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
- 지시, 양화, 양상 식별, 원인 식별, 목표 설정과 행동의 동기 부여의 형태



# 존재론적 은유


- 개념의 단순화 : 추상적 개념을 물리적 실체로 변환함으로써 이해의 용이성을 높임. “그는 의문에 갇혀 있다.” → 의문이라는 추상적 상태를 물리적 공간에 갇힌 것으로 표현하여 불안감과 무력감을 쉽게 이해하게 함
- 경험의 구체화 : 인간의 신체적 경험에 기반, 추상적 경험을 물리적 현상으로 구체화. “그는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다.” → 사고 과정을 물리적 공간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 복잡한 생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함
- 행동 유도 : 추상적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유도함. 감정이나 사고를 물리적 대상이나 공간으로 인식하여 이를 조절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 → 마음을 하나의 물리적인 문으로 비유. 감정의 차단이나 방어를 구체적 행동으로 묘사.

# 존재론적 은유 : 의인화

- 물리적 대상을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은유
- 사람이 아닌 개체에 대한 넓고 다양한 경험을 인간의 동기화나 특성, 활동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함
  - 삶이 나를 속여 왔다.
  - 암이 내 몸을 침범했다.
  -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붙였다. (「인플레이션은 사람」 → 「인플레이션은 적」으로 구체화 됨) → 인플레이션에 관해 사고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공하며, 동시에 대응방식도 제공.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행위가 정당화됨.

# 환유

- 은유가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라면, 환유는 지시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한 개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개체를 대신하는 것.
- 전체로 부분을 나타내는 환유 : “백악관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 : “손이 부족하다.”
- 원인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환유 : “그가 노벨상을 수상했다.”
- 기타 등등
- 환유 개념은 은유 개념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scenic landscape. It features a range of mountains with snow-capped peaks under a sky with soft, colorful clouds in shades of pink, purple, and blue. In the foreground, there is a calm body of water reflecting the sky. At the bottom, some distant lights from a town or city are visible. A semi-transparent blue rectangle is centered over the image, containing the text.

Part 3,  
은유 분석과 비판적 읽기

# 「교육은 시장」 (나익주:25)

## • 예문

- 고교 다양화란?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교육 당국이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 교육의 특성화, 다양화라는 함정과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블랙홀
- 시장 기능(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교육 공급자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 교육을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사고방식을 형성. 이는 교육을 경제논리에 따른 시장처럼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실제와 정합성을 갖는다.**
- 교육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고, 학생은 소비자, 학교는 서비스 제공자로 여겨짐



# 「교육은 시장」

- 부각
  - 경쟁과 효율성 강조.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는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과 유사하게 학교들도 성과를 중시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
  - 개인의 선택의 자유 강조 : 소비자의 선택을 강조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의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인식을 전제함.
- 사립 학교나 특목고의 증가와 같은 현상은 이러한 은유를 반영한 결과

# 「교육은 시장」

- 은폐

- 교육의 공공성을 은폐 : 「교육은 시장」은유는 교육이 공공재라는 측면을 은폐. 교육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시장 논리가 강조되면 경제적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협력과 연대를 은폐 : 시장에서는 경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일 수도 있음. 「교육은 시장」은유는 협력적 측면을 소외시키고 교육을 개인적인 투자로만 바라보게 한다.

# 「사람은 상품」 (나익주:56)

- 가요계 테리우스 신성우 품절남 되던 날
- 봄바람 불자 스타들 품절남 품절녀 행진
- 명품 변호사, 그의 변호사 철학은 사건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 후에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사람은 상품」 →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상품」)

# 「사람은 상품」

- 부각
  -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 강조 : 경제적 가치나 생산성에 따라 평가하는 시각을 부각시킴.
  - 사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처럼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교육, 기술, 경험 등으로 결정.
  - 특히 고용 시장에서 인제는 재능이나 역량에 따라 평가받으며, 더 나은 가치를 지닌 사람은 더 높은 연봉이나 지위를 받는다는 사고방식이 여기에 포함
  - 효율성 및 경쟁 강조 : 이 은유는 효율성과 경쟁을 강조. 각자는 더 나은 상품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기회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이해하게 됨.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하며 시장에 적합한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조됨.

# 「사람은 상품」

- 은폐
  -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를 은폐 : 사람의 존엄성이나 윤리적 가치를 은폐. 감정, 인격적 측면, 사회적 책임 등 비경제적 가치는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를 은폐 : 사람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은폐. 저임금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교육과 인재 양성의 상품화로 이어짐 : 교육을 통해 사람을 더 나은 상품으로 만들고 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 형성.
- 사람을 하나의 경제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을 강화함.

# 「세금은 폭탄」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 계층
-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세금 폭탄 제조자들
- “세금 폭탄” 부동산 세율 인상 논란
-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이 타격을 입고 있다
-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 폭탄

# 「세금은 폭탄」

- 부각

- 세금의 부정적 측면 강조 : 세금을 위협적이거나 갑작스러운 피해로 부각. 세금이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세금을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 아닌, 개인과 가정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으로 강조
- 세금 인상의 갑작스러움과 충격 강조 : 사람들이 느낄 감정적 충격을 반영. 충분한 준비나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세금 정책이 이루어질 때 종종 사용됨

# 「세금은 폭탄」

- 은폐

- 세금의 공공적 기능을 은폐 : 세금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측면을 은폐.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 무시되고, 세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고통스러운 의무로만 인식하게 함
- 세금의 재분배 기능을 은폐 : 세금이 소득 재분배의 도구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은폐함. 폭탄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지만, 세금은 공공복지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간과됨



# 「세금은 폭탄」

- 구조

- 「세금은 폭탄」 은유는 정부의 세금 정책과 개인의 재정적 피해를 연결함.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행위가 마치 개인이나 가정에 폭탄을 던지는 것처럼 묘사되며, 이로 인해 개인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미지가 형성됨
- 예상치 못한 위협의 이미지를 내포 : 폭탄은 예고 없이 터지기 때문에 세금도 마치 개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됨. 이는 세금이 예측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부각시킴

# 「전쟁은 의료」 (나익주:110-116)

- 그 선택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한국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였다. 양자택일의 압박 속에서 페리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적 선제공격’을 입안했다.
- 예방 타격의 일환인 미국의 코피 작전은 이른바 소규모 외과 수술적 타격 (minor surgical strike)입니다. 적 공격 징후는 없지만 미래 공격을 사전에 없애려고 적을 타격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만을 정밀 타격하는 개념입니다.

# 「전쟁은 의료」 (나익주:110-116)

- 부각

- 북한의 핵 역량을 질병으로 인식 : 북한의 핵 역량을 마치 인체의 질병처럼 다루고 그것을 제거하거나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봄. 이를 제거해야 북한과 그 주변국이 안전하다고 주장
- 미국의 정밀 타격은 치료법 : 정밀 타격은 질병 부위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에 비유됨.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정확한 수술적 조치로 부각되며 큰 피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형성됨. 군사적 개입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전쟁은 의료」 (나익주:110-116)

- 은폐
  - 정치적·윤리적 논의 은폐 : 전쟁의 정치적 맥락과 윤리적 논쟁을 은폐함.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단순히 군사적 타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축소됨. 실제로는 복잡한 외교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치료처럼 단순화된 문제로 취급.
  - 폭력의 은폐 : 실제로는 전쟁의 폭력성과 민간인 피해를 은폐할 수 있음. 타격의 결과로 인한 파괴나 고통은 수술적 조치의 이미지로 가려지게 됨

# 「가습기 살균제는 살인자」 (나익주:178-185)

- ‘침묵의 살인자’ 받아 든 독일 ..... 우리 정부와는 달랐던 대처. 독일 정부의 흡입 독성 시험 요구에 시장 진출 포기한 옥시
- 사람 죽이는 생활 용품 : 가습기 살균제
- 질병관리본부 초동 조치 실패
-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나?

→ 국민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국가에도 분노한다. 왜 그러한가?

# 「가습기 살균제는 살인자」 → 「국가는 가정」

- 피해자의 인터뷰 가운데 (나익주:182)
  - “누구도 정부에서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 “정부에 물어보면 기업과 싸우라고 한다. 정부가 중재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프니 피해자와 가해 기업끼리 해결하라는 식이다.”
- 부각
  - 국가의 보호자 역할 강조 : 국가가 가정처럼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을 부각시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 형성.
  - 국가에 대한 신뢰 기대 : 국민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기대 하듯이, 국가에도 비슷한 신뢰를 갖고 있음.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분노는 그만큼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었음을 시사.

# 「국가는 가정」

- 은폐

- 국가의 복잡한 역할이 은폐됨 : 국가가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의 단일한 역할만을 부각시키며, 국가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은폐. 단순히 보호자로서의 책임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복잡성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간과됨
  - 국민의 역할과 책임이 은폐됨 : 국가만을 보호자로 바라보고 국민을 의존적 존재로만 설정하여 국민의 역할과 책임을 은폐.
- 「국가는 가정」이라는 은유는 국가가 국민을 돌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된 국가의 역할은 법적이고 공적인 책임에 중점을 두므로 가정이나 부모라는 은유는 헌법적 역할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은유는 국민의 기대를 강조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국가가 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의 맥락에서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

# 「국가는 사람」 (나익주:184)

- 정부의 관망적인 태도는 「국가는 가정」 은유를 거부함을 의미하고, 「국가는 사람」의 은유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 결과
  - 국가도 단지 한 개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함
  - 국가는 가정이 아니고 단지 한 개인이므로 정부는 국민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둔 부모가 아니다.
  - 정부는 살인자로 개념화되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독성 물질을 제조하고 역사 사람으로 개념화되는 기업이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식구)와는 다른 제3자로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 그러나 「국가는 사람」이라는 은유에서, 국가가 책임 있는 개인이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고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갈 수 있다.



# 「국가는 사람」 (나익주:184)

- 김나연(2024.6.28.),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판결 확정',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281806001>, (2024.10.1.).
-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고,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돼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했다.
- 「국가는 사람」 은유는 국가를 책임 있는 주체로 만들 수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유리함 → 정부의 방관 자적 자세를 비판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

# 비판적 읽기 : 은폐된 전제 찾기

- 텍스트 속 은유는 저자의 사고방식과 전제를 담고 있으며, 그 은유가 정합성이 있다면 그 사회의 **문화적 코드나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음
  - 핵발전을 둘러싼 논쟁의 국면에서
    - “핵발전은 필수 자원” 은유 : 핵발전이 경제적 성장과 국가 에너지 안보 필수 자원으로 인식, 성장 중심의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반영.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부각됨. 반대로 환경적 위험성과 장기적 생태적 문제를 은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나 비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배제될 수 있음.
    - “핵발전은 재앙” 은유 : 핵발전이 대규모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임을 강조, 반핵운동과 환경보호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를 반영. 반면 이 은유는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향상이나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문제를 은폐. 환경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경제적 비용이나 전력 수급 불안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다루이지 않을 가능성이 생김.

# 비판적 읽기 : 대안적 은유 탐색

- 기존 은유들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대안적 은유를 찾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음
- 기존 은유 “핵발전은 필수 자원”
- 대안적 은유 “핵발전은 다리” :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이는 장기적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상정하면서, 현재의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하는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

# 비판적 읽기 : 프레임의 전환

- 프레임은 사회적 · 정치적 이슈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틀로서, 이는 언어나 은유를 통해 형성된다. 특정 프레임을 설정하면 어떤 사실은 부각되고 다른 사실은 은폐됨
- 대안적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음
- “국가는 사람”에서 “국가는 관리인”으로 대안적 은유를 사용할 경우
  - 국가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프레임 될 수 있음
  - 특정 문제를 개인적 책임에서 제도적 문제로 확대하여 접근하게 함
  - 잘못된 정책과 결정에 대한 처벌에서 더 나아가 제도 마련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 국가 시스템적(구조적) 책임을 부각함

# 비판적 읽기 : 자기 논의를 기반 파악

- 자기 글에서 사용하는 은유가 어떤 전제와 사고방식을 반영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음
- 은유를 분석하면서 논리적 오류를 찾기보다는, 논의의 근본 전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 은유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논리를 왜곡하거나 편향을 낳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과정
- 보다 균형 있는 사고로 나아가는 방법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textured, abstract pattern of brushstrokes in various shades of purple and blue. The strokes are thick and layered,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A dark blue rectangular box is centered on the slide, containing the text.

# Part 4, 은유와 학술적 글쓰기



#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은유

-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 : 은유는 독자가 복잡한 이론이나 개념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시장은 기계다”라는 은유는 시장이 잘 조정되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
- **논리적 설득력** : 은유는 독자의 사고방식을 유도하고, 특정 논리적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준다. “데이터는 원유이다”라는 은유는 데이터를 현재 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제시함으로써,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 독자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함

# 은유 사용 지침

- 의도적이고 명확하게 사용 :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는 데 유용하나, 어떤 전제나 사고방식을 강화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남용 자제 : 은유를 남용할 경우, 논리가 흐려지거나 혼란 초래할 수 있음.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핵심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논리적 전개를 강화하는 데만 활용



Part 5,  
종합 정리

# 은유의 역할과 기능

- 은유란 무엇인가?
  - 은유는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라, 사고를 구조화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를 통해 우리는 복잡한 개념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인지언어학적 은유의 특성
  - 구조적 은유: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다른 구체적 개념을 통해 설명함. 예시: “논쟁은 전쟁”
  - 존재론적 은유: 존재나 개체로 다루는 비유. 예시: “시간은 자원이다”
- 부각과 은폐
  - 은유는 특정 측면을 부각하는 동시에, 다른 측면을 은폐. 예를 들어, “시간은 돈”은 시간을 자원으로 보게 하지만, 시간의 질적 측면(휴식, 창의성)을 은폐할 수 있다.

# 비판적 읽기와 대안적 은유

- 은유 분석을 통한 사고방식 파악
  - 은유는 저자의 사고방식과 전제를 반영. 이를 분석함으로써,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비판적 읽기
  - 특정 은유가 어떤 메시지를 부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을 은폐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 예시: "세금은 부담" 은유는 세금을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게 하여 세금 감면을 지지하게 만들지만, 세금의 사회적 기능을 은폐할 수 있다.
- 대안적 은유의 필요성
  - 기존 은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대안적 은유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은 투자"는 세금을 공익적 기여로 보게 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

#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은유

- 은유의 전략적 사용
  -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은유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며, 독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데만 활용해야 한다.
- 은유 남용의 위험성
  - 은유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개념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은 기계다”라는 은유가 과용되면 시장의 동적이고 복잡한 특성이 은폐될 수 있다.

# 활동

---

개별적으로 실습해보세요.



# 자신의 글에서 은유 분석하기

- 목표 : 은유의 사고방식을 인식하고, 자신의 논지 전개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름
- 1. 글 다시 읽기 : 의도적으로 사용한 은유와 관습적으로 사용한 은유를 구분
- 2. 분석하기
  - 1) 이 은유는 무엇을 부각하고, 무엇을 은폐하는가?
  - 2) 이 은유가 내 논리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3) 이 은유가 독자에게 어떤 관점을 유도하는가?
- 3. 결론 도출: 은유를 분석한 후, 그 은유가 글의 논리와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대안적 은유가 있을 경우 생각해본다.

# 뉴스 기사에서 은유 찾기

- 목표 : 대중 담론에서 사용된 은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은유가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 1. 뉴스 기사 선택 : 특정 주제(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뉴스 기사를 선택. 기사는 되도록 명확한 관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선정
- 2. 은유 찾기 : 기사를 읽으며, 사용된 주요 은유를 식별.
- 3. 분석하기
  - 1) 이 은유는 기사의 어떤 관점을 강화하는가?
  - 2) 이 은유는 어떤 정보나 관점을 은폐하고 있는가?
  - 3) 이 은유가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 4. 결론 도출: 은유가 기사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 은유가 독자에게 주는 인지적 프레임을 설명한다. 은유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강화하는지 파악한다.

# 대안적 은유 제시하기

- 목표 : 기존 은유의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적 은유를 제시하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1. 주제 선택: 특정 주제(예: 환경 문제, 경제 정책, 사회적 문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자주 사용되는 은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예: “기후 변화는 전쟁”과 같은 은유를 선택한다.
- 2. 기존 은유의 한계 분석: 기존 은유가 부각하는 점과 은폐하는 점을 찾아내고, 그 은유가 문제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분석한다.
  - 예시 질문:
    - 이 은유는 기후 변화를 전투적으로만 바라보는가?
    - 이 은유가 은폐하는 중요한 측면(협력적 해결 등)은 무엇인가?

# 대안적 은유 제시하기

3. 대안적 은유 제시: 기존 은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은유를 제시한다.
  - 예: “기후 변화는 생태계의 균형 회복 과정”이라는 은유는 협력적 관점을 부각할 수 있다.
4. 대안적 은유의 효과 분석: 대안적 은유가 문제를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독자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
5. 결론 도출 : 프레임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은유 전환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감사합니다

- 신제원 -